

존경하는 무용인 여러분!

우리는 힘들었던 3 년여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불투명한 신냉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혐오와 차별,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면 국제사회의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올해는 남, 북 정전 70 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수많은 갈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동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와 예술의 힘은 어려울 때일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번에 세계 춤의 날 메세지 오서로 선정된 중국의 양리핑은 "춤은 인간이 세계와 교감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갈등을 화합시키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합니다.

무용 예술을 평화의 도구로 삼아 전 세계가 함께 상생하는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올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춤의 날"이 41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날은 18 세기 발레 무용가 장 조르주 노베르의 생일인 4 월 29 일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는 춤이야말로 언어를 뛰어넘는 극한의 감정표현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춤을 통해 진정한 예술성을 찾고자했습니다.

이러한 노베르의 무용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노력은 우리 무용이 독보적인 예술 장르로 널리 사랑받게 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때문에 유네스코 ITI 와 WDA(세계무용연맹)은 해마다 "세계 춤의날"을 기념하여 메세지를 선포하고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무용가 양리핑이 오서로 선정되어 작년 한국의 강수진에 이어 아시아에서 연이어 작성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리핑은 "춤은 자연과 생명이 직결되고 소통하며 삶의 본질이 여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춤은 세계를 위해 다양성, 다원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능성을 제공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녀의 예술혼처럼 세계가 상생과 평화공존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무용예술은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용인 여러분이 자리매김을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춤은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회장  
김공수 드림